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리처드 웨브란트 편

2019년 3월

“나는 진정으로 기뻐하는 기독교인을
오직 성경과 지하교회와 감옥에서 발견했다.”

-리처드 웨브란트



폴리 부부가 독자에게 전하는 말씀



[facebook.com/VOMKorea](https://www.facebook.com/VOMKorea)

twitter.com/VOMKorea

[youtube.com/c/voiceofthemartyrskorea](https://www.youtube.com/c/voiceofthemartyrskorea)

vomkorea.com

02-2065-0703

[김교신 흠]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17길 15

[사무실]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후원계좌: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소리

사람들은 보통 리처드 월브란트(Richard Wurmbrand) 목사님이 쓴 책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Tortured for Christ」을 월브란트 목사님의 인생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책이나 그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주인공은 월브란트 목사님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한 여성입니다. 그러나 월브란트 목사님의 부인, 사비나 사모님은 아닙니다. 주인공 이름은 영화가 끝난 뒤에 나오는 자막이나 책 표지, 영화와 책을 홍보하는 자료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그 여성을 알려주셔야 우리는 영화와 책에서 그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영화나 책을 몇 번은 봐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영화와 책은 그 여성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여성은 누구일까요? 바로 '지하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감옥을 배경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지하교회를 보려면 감옥을 봄아하고 가장 폐쇄된 국가들을 봄아 합니다. 지하교회는 부유하고 자유로운 곳, 사람들이 권리와 존엄성과 좋은 음식과 수돗물을 누리는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월브란트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불행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북한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지역에 있는 지하교회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사랑의 교회의 부활절 예배, 명성교회의 새벽예배,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기도원은 너무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월브란트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서, "지하교회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일부 서구 교회의 공허함에 더는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고문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월브란트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그 여성, 바로 지하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영화를 보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그리스도처럼, 사도 바울처럼, 월브란트 목사님처럼 지하교회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 책은 루마니아 목사인 리처드 월브란트 목사가 공산주의 치하에서 겪었던 고문과 독방 수감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이미 6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바 있다. 월브란트 목사는 순교자의 소리(The Voice of the Martyrs)의 설립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갇혔던 많은 그리스도인을 기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고난을 감수하는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들로부터 배워서 우리 각자의 삶으로 살아내도록 준비시킨다.



“
오늘날 자유를 빼앗긴 나라들에서 그렇듯이, 당시 루마니아에서도 다른 죄수에게 전도하는 일은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그러다가 적발되면 심하게 매질 당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 대가를 치르기로 하고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거래였다. 우리가 전도하면 교도관들은 때렸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기뻤고, 그들은 우리를 때려서 기뻤다. 그렇게 모두가 만족했다.

다음과 같은 일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났다. 한 형제가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교도관들이 갑자기 들이닥쳤고, 메시지를 절반 정도 끝마친 형제는 깜짝 놀랐다. 교도관들은 그 형제를 끌고 복도를 지나 '구타실'로 데려갔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매질이 마침내 멈추고, 교도관들은 피투성이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그 형제를 데려와 감방 바닥에 던졌다. 그 형제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천천히 일으켜, 괴로운 듯이 옷매무새를 매만지고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자 …… 여러분, 아까 어디까지 말했던가요?” 그 형제는 계속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중, 51~52쪽



[김교신 흡] 서울시 성북구 경릉로 17길 15
 [사무실]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후원계좌: 국민은행 463501-01-243303 || 예금주: (사)순교자의소리
www.vomkorea.com || 02-2065-0703



한국 기독교 재정투명성협회
 1호 인증

facebook.com/VOMKorea

twitter.com/VOMKorea

youtube.com/c/voiceofthemartyrskorea

2019년 3 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1 미얀마 기독교인에 대한 불교 신자들의 적대심이 커져도, 기독교인들이 굳건히 서도록 기도해주세요.	2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 교회가 늘어나고 성장하도록 기도해주세요.	3 베트남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 최전선 사역자
4 아제르바이잔 교회 지도자들이 사회에 만연한 부패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5 말레이시아 하나님이 새로운 정치 분위기를 사용하여, 말레이시아 국민이 좋은 소식에 마음을 열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주세요.	6 시리아 군대에 징집된 청년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7 케냐 젊은이들이 무슬림 사상보다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기도해주세요.	8 에리트레아 에리트레아 신자들을 위한 성경 학교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9 이라크 어려운 일들이 많아도 목회자들이 힘을 내서 사역하도록 기도해주세요.	10 소말리아 순교자의 소리 훈련 센터 일꾼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지도력이 튼튼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11 예멘 예멘에 평화가 오기를 기도해주세요.	12 에리트레아 정부와 당국자들, 에리트레아를 장기 집권하고 있는 이사이아스 아페르위키 (Isaias Afwerk)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3 인도네시아 교회 개척을 새로이 준비하는 선교 훈련 센터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14 시리아 기독교인들이 상상도 못할 시련을 이겨내도록 기도해주세요.	15 투르크메니스탄 기독교를 버리겠다는 선서를 하라고 학교에서 강요당하는 기독교인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6 스리랑카 국내외에서 사역할 스리랑카인 선교사들을 더 많이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주세요.	17 에티오피아 무슬림 무리에게 팍박받는 동부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8 타지키스탄 지금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확산되도록 기도해주세요.	19 坦자니아 “우리 목회자들이 추가로 훈련받을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 최전선 사역자	20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반군의 공격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위로를 얻고 믿음을 잊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21 브루나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22 중국 루 목사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정저우에 있는 루 목사의 교회가 2018년에 폐쇄되었습니다.	23 카타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서 기뻐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해주세요.	24 타지키스탄 교회와 가정이 경찰의 급습을 당하지 않게 보호해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25 리비아 현재 건축 중인 새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26 소말리아 신자들이 소말리아에 성경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7 말레이시아 기독교인들이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사랑하도록 기도해주세요.	28 예멘 내전 동안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9 소말리아 순교자의 소리에서 지원하는 매체 사역이 세계 곳곳의 소말리아 국민에게 미치도록 기도해주세요.	30 미얀마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마을 기독교인들이 건강하도록 기도해주세요.	31 이라크 지금도 폭력이 난무하는 바그다드의 신자들이 안전하도록 기도해주세요.

“당신이 방금 얼마나 심오한 말을 했는지 모를 겁니다.

모든 애벌레는 사실 나비에요.

제대로 자라면 나비가 되죠.

당신도 사람을 죽이는 고문 기술자로 창조된 게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에 지니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순교자의 소리 창립자 리처드 월브란트

Richard Wurmbrand

이달의 추천 도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제 영화로 보십시오

주문방법 온라인주문 vomkorea.com/shop
 전화주문 02-2065-0703

“

마체비치Matchevici는 티르굴 오크나Tigul-Ocna 감옥에 있던 어린 수감자였다. 18살에 감옥에 붙잡혀온 그는 고문 때문에 결핵에 걸려 심하게 앓았다. 그의 가족은 그가 죽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용케 알고, 생사의 갈림길에 선 그를 살리기 위해 결핵 치료제 100병을 보냈다. 감옥의 정치장교는 마체비치를 불러 소포를 보여 주며 말했다. “여기 너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다. 그렇지만 죄수가 가족에게 소포를 받는 건 금지되어 있지. 개인적으로 너를 돋고 싶다. 아직 어린 너를 이 감옥에서 죽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게 도와라! 동료 죄수들에 대한 정보를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나도 이 소포를 네게 준 것이 타당한 조치였다고 상관들한테 해명하겠다.”

마체비치가 대답했다. “그렇게 살아남아 거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싶지 않아요. 거울 속에서 밀고 자의 얼굴을 보게 될 테니까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러자 정치장교가 마체비치의 손을 잡고 흔들며 말했다. “대단하구만! 사실 나도 다른 답변을 기대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다른 제안을 하고 싶군. 여기 죄수 중에는 우리에게 협조하며 정보를 주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면서 너에 대해 밀고하고 있지. 1인 2역을 하는 셈인데 어디 믿을 수가 있어야지! 우린 그들의 진심이 원지 확인하고 싶다. 그들은 네 말과 행동을 밀고해서 해를 많이 끼친 배신자들이야. 동지들을 배신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그들은 너를 적대하는 자들이니, 그들에 대한 정보를 주고 네 목숨을 보전해!”



그러나 마체비치는 처음처럼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분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물론 배신자들은 우리에게 해를 많이 끼쳐요. 그래도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거예요. 그들에게 불리한 정보도 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들과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습니다.” 마체비치는 그렇게 비밀경찰과 대화를 마치고 돌아온 뒤에 나와 함께 있던 감방에서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사랑이 생존에 대한 본능마저 정복해 버린 것이다.

내가 이 책에서 말하는 이야기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되찾은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아주 많이 사랑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그리스도의 영적인 몸)를 보고 난 지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지하교회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지하교회의 아름다움과 희생정신을 보았다. ”



리처드 월브란트 목사

리처드 월브란트 목사는 공산주의 치하 루마니아의 지하교회를 이끌었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14년이 넘도록 공산주의 감옥에서 고문과 세뇌, 약물주입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월브란트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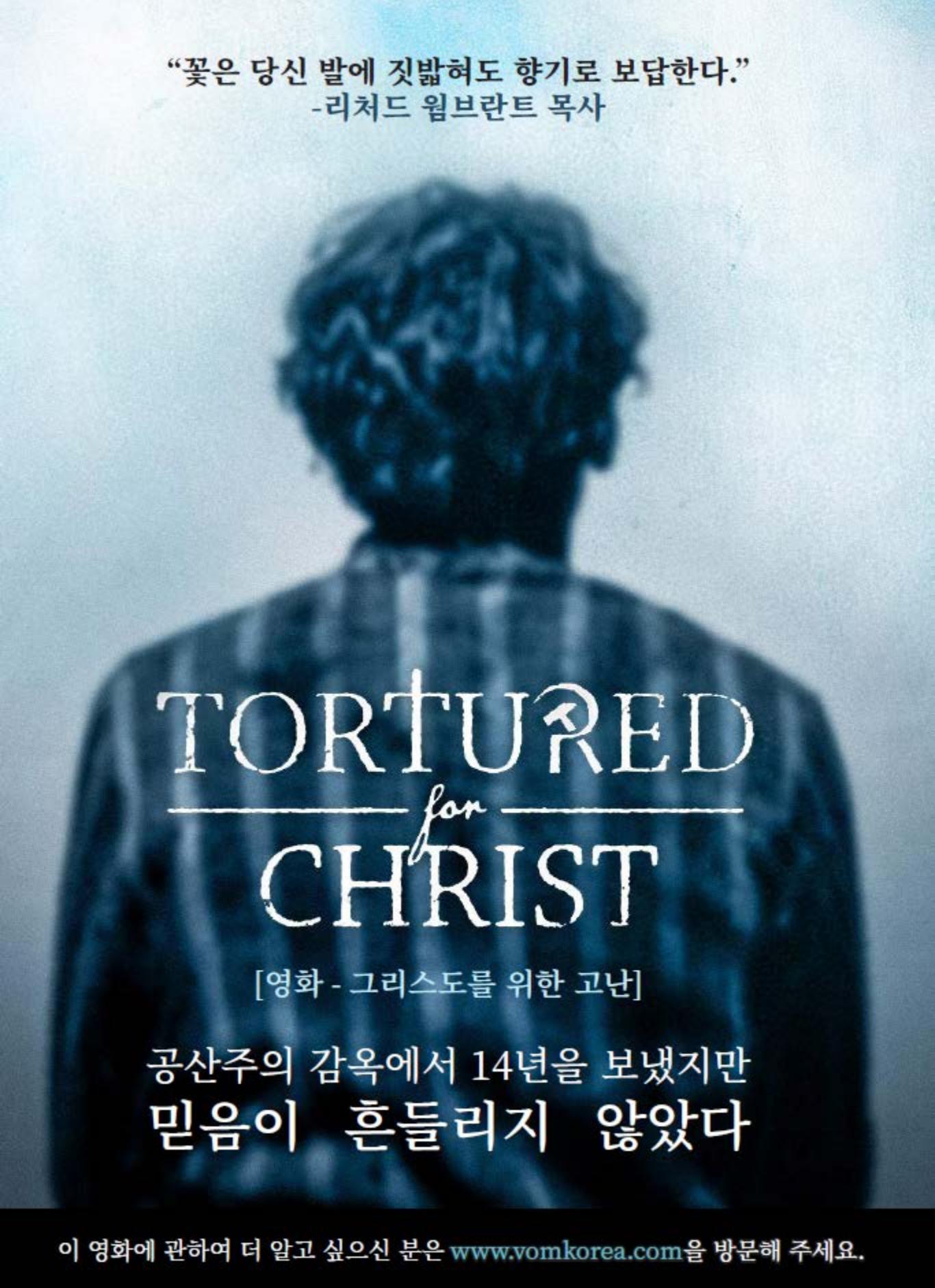
루마니아 출신 유대인인 월브란트 목사는 나치가 루마니아를 점령하기 훨씬 전부터 유대인이 아닌 이웃들에게 차별을 당했습니다. 9살 때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으로 몸부림치던 젊은 월브란트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공산주의에 눈을 돌렸습니다. 월브란트는 한동안 루마니아 비밀경찰에 쫓기는 국제 공산당 요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몇 차례 체포되었습니다.

월브란트는 크리스천 빌프케스라는 이름의 독일 기독교인 목수를 만났습니다. 이 목수는 몇 년 동안 유대인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왔고 그 응답으로 월브란트를 만났던 것입니다. 빌프케스의 돌봄과 기도로 월브란트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루마니아의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을 때, 월브란트 목사는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와 공산주의의 관계에 대한 진리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제일 먼저 충성해야 한다.” 월브란트는 이 회의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은 행동들로 인해 14년의 수감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월브란트 목사는 결국 몸값 만 달러를 지불하고 루마니아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안락하고 즐거운 여생을 보내는 대신, 핍박받는 교회들의 목소리가 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후에 순교자의 소리의 전신이 된 ‘Jesus to the Communist world(공산주의 세계에 예수를)’이라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꽃은 당신 발에 짓밟혀도 향기로 보답한다.”
-리처드 워브란트 목사



TORTURED *for* CHRIST

[영화 -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공산주의 감옥에서 14년을 보냈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